

# 가축분뇨 자원화 뉴스

홍보부

## 축분뇨 자원화 우수 지자체 5곳 · 액비유통센터 6개소 선정



이번에 지원된 인센티브는 지자체의 경우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분뇨처리 시설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 액비유통센터의 경우 액비살포차량 등 장비구입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농림부 이상철 축산자원순환과장은 “작년부터 실시한 평가제 도입은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액비이용 확대에 노력하는 조직을 집중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해 가축분뇨 자원화에 앞장선 우수 지자체 및 액비유통센터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는 우수 지자체로 △충북 청원 △경남 산청 △강원 철원 △경기 이천 △전북 정읍이며, 우수 액비유통센터는 △전남 영광축분액비유통센터 △강원 철원액비유통센터 경남 진주양돈영농법인 △충북 청원양돈영농법인 △경기 이천 양돈협회 △충남 예산 양돈협회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지자체 5곳에는 국고 보조 1억 5천만원, 국고 융자 2억5천만원, 지방비 1억원 등을 포함 각 5억원이 지원되며, 액비유통센터에는 각 8천만원(국고 보조 4천만원, 지방비 4천만원)이 지원된다.

- ▲철원군 = 강원 철원군은 1999년 전국 최초로 농가에 액비저장조를 지원. 액비살포면적은 2006년 392ha에서 지난해 1,004ha로 256% 증가했고, 올해는 1,200ha로 증가할 전망
- ▲청원군 = 2006년 청원군 양돈농가에선 모두 5,900톤의 분뇨를 해양배출했지만 2007년에는 3천톤으로 줄고, 올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
- ▲영광축분액비유통센터 = 2003년부터 운영된 영광축분액비유통센터는 지난해 1,248ha에 액비를 뿌렸지만 올해는 1,500ha로 늘릴 전망. 액비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살포중

## 해양배출 축분 성분검사 한 번이면 될 듯

오는 8월 22일까지 성분검사 완료해야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양돈농가의 의무 성분검사가 단 한 번의 검사만으로,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시점까지 반복적인 검사 없이 해양배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8월 22일까지 성분검사를 완료해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대한양돈협회가 해양배출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성분 분석과 관련해 불필요한 성분검사의 불합리성과 조정을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함에 따라, 당초 2월 22일까지 의무적으로 성분검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오는 8월 22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되었고, 143만원의 지정가격도 70~80만원대로 인하됐다.

특히 당초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성분검사는 연간 1회씩 매년 검사해야 했지만, 이를 조정하여 한 번의 검사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을 때는 추후 추가적인 의무검사 없이 해양배출이 가능하도록 해 양돈농가의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돈협회는 오는 8월 22일까지 해양배출 양돈농가에서 성분검사를 완료해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적인 여건상 조속히 양돈농가들이 성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 이달부터 성분분석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입수하고 최저가격으로 성분검사 공동의뢰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실제로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분석업체는 15개소로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업체당 월간 검사가능 물량이 100건 미만이며 검사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경우 과부하가 생길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성분검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한편 양돈협회는 이같이 성분검사 가격을 내리고 검사횟수도 기준치 이하일 때는 추가 의무검사를 하

지 않게 조정한 것 이외에도, 2012년부터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법 조항을 삭제토록 하여 불가피한 경우 양돈농가를 범법자로 만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협회는 해양배출량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다만 현재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성분검사 비용을 더욱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항목을 통합총량검사로 실시하여 검사항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지속 요구하고 있다.

## 해양배출 가축분뇨 성분검사 공동의뢰 착수

양돈협, 전국 양돈농가 대상 신청 접수

해양배출 양돈농가는 오는 8월 22일까지 성분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나와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농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성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분검사 공동의뢰 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성분검사는 최근 정부가 제정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의무적인 검사 대신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해양배출이 가능하도록 정해졌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성분검사 결과 가축분뇨가 기준치 이하로 나오게 되면 추후 추가적인 의무검사 없이 해양배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가들은 우선 성분검사를 완료하고 해당 가축분뇨가 문제없이 해양배출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양돈협회는 농가들이 조속히 성분검사를 받되 최저가격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성분분석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입수하고 있다.

또한 협회 지부를 통하여 지역 양돈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공동으로 성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양돈농가 자체처리 대부분 '퇴·액비화'



농협중앙회가 2,23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농가 중 대다수가 일관 사육(88.5%)을 하고 있으며, 비육 7.1%, 모돈 4.4%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두수는 1,200~2,000두를 사육하는 농가가 전체의 63.5%를 차지하고, △2,001~3,000두가 19.6% △3,001~5,000두가 11.4% △5,001~9,999두 3.9% △10,000두 이상 1.7%로 조사됐다.

농가별 분뇨처리 방법은 농가호수를 기준으로 자체 처리가 49%, 위탁처리가 50%로 나타났다. 자체처리의 경우 퇴·액비화 비중이 90%를 차지해 자원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해양배출 비중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남(40%), 경북(44%), 경남(42%)이 해양배출이 많고, 정화처리는 충남(13%), 경기(8%), 강원(5%) 순이었다.

### 연천지역 축분뇨 해양배출 중단 추진

파주연천축협 - 옥계 울무·공작목반 - 연천액비유통센터 협약

파주연천축협은 지난 2월 21일 연천군 군남면 옥계 1리 마을회관에서 옥계리 울무·공작목반(반장 차현석), 양돈협회 연천지부 액비유통센터(소장 강용구)와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27일 파주지역 축산분뇨 해양배출 중단 선언에 이어 연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자연순환농업을 통해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파주연천축협은 이날 울무·공작목반에 무이자 상생자금 3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파주연천축협과 연천군 액비유통센터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해 옥계리 울무·공작목반에 공급, 친환경적인 우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 가축분뇨 처리시설 평가신청 접수

농진청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은 2008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 실시에 대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퇴비화·액비화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품질·기술·경제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후 축산농가에게 우수한 처리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지난 2006년과 2007년은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에서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진청 축산과학원으로 이관해 실시된다.

신청 자격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업체(설계·시공 자격자)로서 농가 규모는 설치 실적이 2건 이상이며, 공고일 현재 준공 후 6개월이 경과한 1건 이상의 가동실적이 있는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시설은 1일 30톤 이상으로써 공고일 현재 준공 후 6개월이 경과한 1건 이상의 가동실적과 1일 100톤 이상 처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심사 선정한다.

4월말까지 접수를 받는다. 평가절차는 신청 서류심사(프레젠테이션포함) 현장실사 종합평가 등을 거치게 된다.

평가에서는 기술력, 처리성능, 시공편리성, 유지관리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평가받은 시설은 이를 인정해 신청에서 제외키로 했다.

□ 문의 :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031-290-1723)

### 산뜻한 축분운반차량 이미지 개선 만점



일반시민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던 축산분뇨 운반차량이 가축분뇨 이미지 개선에 한 몫하고 있다.

자연순환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축협들이 일명 축분운반차량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차량 외관부터 바꾸고 있어 화제다.

김포축협(조합장 임한호)의 경우 기존 차량에 탑을 씌우는 방식으로 개조해 외부에서는 축분운반차량인지 냉장탑차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도록 외관을 확 바꿨다. 김포축협은 특히 탑차 외부를 돈모닝포크 등 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광역축산물브랜드 이미지로 디자인해 축산물 홍보까지 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

다. 파주연천축협(조합장 이철호)도 축분운반차량을 아름답게 개선했다. 파주연천축협은 기존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데 착안해 푸른 초원과 꽃무늬를 곁들인 자연미 넘치는 디자인을 통해 차량 이미지를 개선했다.

이들 조합 관계자들은 축분운반차량의 이미지까지 신경쓰면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축분처리와 환경농업을 통해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상생하면서 서로의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축산신문)

### 안성 바이오가스 생산연구기지 준공식 개최 하루 5톤 축분·음식물쓰레기가 450KWh 발전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 이용 바이오가스 생산 연구시설 준공식이 지난 3월 7일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국제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이영규) 바이오가스 플랜트 현장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동희 안성시장, 최일신 한경대학교 총장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준공식을 주최한 국립대학인 한경대학교(총장 최일신)와 금호건설(사장 이영규)은 "국내 기술만으로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병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갖추게 됐다"며 의의를 밝혔다.

이 시설은 산·학·관·민(금호건설, 한경대학교, 경기도, 안성시, 국제축산영농조합법인) 협동연구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하루 5톤의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로부터 1일 450KWh 전력(가정용 에어컨 10대를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축분과 유기성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해 바이오가스(메탄, CH4) 생산량을 기존시설 대비 3배 이상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양도**